

서울시, 시민 라이프스타일 혁신사업 가동

“숲·공원 녹색공간서 취미 즐겨요”

공원과 음악·미술 콘텐츠 융합해 공연, 그림그리기 등 프로그램 운영 향수 불러일으키는 사진 공모전도



서울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공원에서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가든 투어, 소규모 음악회, 드로잉, 사진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7월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목표로 ‘예술품은 매력정원’ 사업을 가동한다. 이 사업은 공원·산림에서 오프라인 여가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수요에 맞춰 마련된 프로젝트다. 공원의 스토리와 융합하는 음악·미술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녹색 공간에서의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면서 “또 여가 지출 비용이 증가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원이야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예술품은 매력정원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매력가든 투어 ▲음악이 흐르는 정원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 ▲공원 속 추억 전시이다.

매력가든 투어는 공원의 테마를 발굴해 스토리를 입힌 서울공원 여행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8월 휴지기 제외)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인 선유

공원의 풍경을 탐방하고 요가를 즐기는 ‘선유요가’, 낙산공원의 역사적 공간을 둘러보는 스토리 투어와 전통 공연이 결합된 ‘낙산풍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이 흐르는 정원은 봄·가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회와 서커스 공연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4~5인조 음악 그룹을 선정해 공원별 순회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은 그리기 도구와 돛자리를 빌려주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공원의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음악을 들으며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녹지 곳곳에 음향장비도 설치한다.

공원 속 추억 전시는 서울의 공원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공모전을 여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올 11월 서울시내 공원에서의 추억이 기록된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우이신설선 방학역까지 연장... 내년 착공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이라며 “주택 고밀 지역임에도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우이신설선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작년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전문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프로젝트다.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1호선 방학역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인 도봉구 방학

연장선 개통 후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첨두시 약 3분 시격으로 운영된다. 솔밭공원역~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시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1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 거듭난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3개소이다. 공사 후에는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2곳이 추가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천시민도 쓴다

서울-과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 경기 남부권 연결... 수도권 확대 박차

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과천시의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2만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과천을 오간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가 함께한다. 과천은 서울시와 경기 남부 지방자치단체 간 길목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 남부 주민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양 도시 간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도시는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역사의 운영 기관인 코레일과 협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4호선 과천 구간이 포함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에 보답하고자 인근 수도권 지자체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와 차례로 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이 밖에 다른 기초 지자체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와 과천시,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인접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소방관 45% 트라우마 경험... 전문치료 필요

한림대강성심병원, 소방관 조사 74%, 트라우마 치료해본 적 없어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 개발

방관 전문 트라우마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방관은 84% (883명)에 달했다.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관이 전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4%는 소방관 전문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PTSD와 관련된 키워드로 심폐소생술(CPR), 출동벨소리, 사고, 기억, 현장, 출근, 부상 등을 꼽았다.

화상전문병원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2023년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소방관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소방관 대상 트라우마 전문 치료 프로그램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를 개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 소재 소방관 18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관은 45%(477명) ▲트라우마를 치료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소방관은 74%(354명) ▲소방조직 내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낀 소방관은 65%(682명) ▲소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다. 세션 1은 이병철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 ‘예측하는 기능으로서

의 뇌와 트라우마의 극복’을 주제로, 소방관이 불길이나 사망 등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변화된 환경과 몸 상태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돕는다.

세션 2는 황세희 한림화상재단 사무과장이 ‘신체감각치료 기반 정서조절 치료프로그램’을 주제로, 소방관이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심신안정화 방법을 내재화해준다.

세션 3은 권승신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처리 치료프로그램’을 주제로, 소방관이 PTSD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세션 외에도 자율신경계 정밀검사, 트라우마 최적화 중재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파주임진각 곤돌라 탑승객 160만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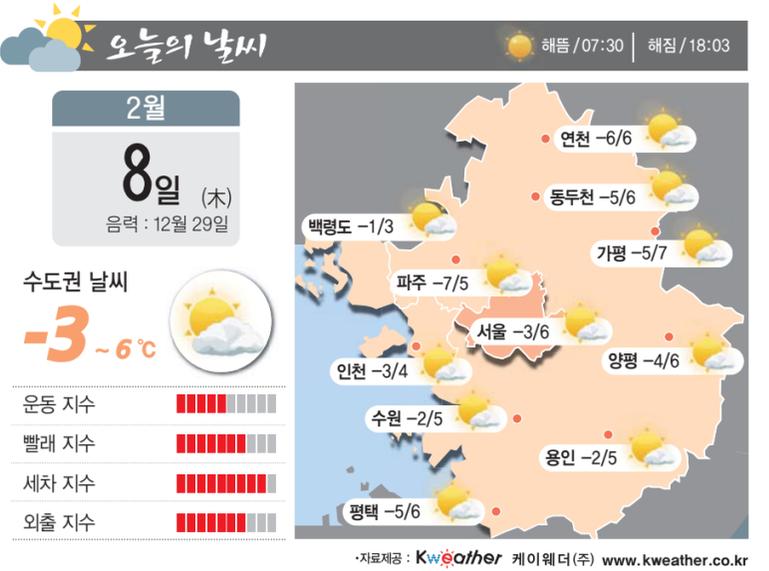
방문객 상승세... 설 연휴 정상운영

타 시군 케이블카 탑승객이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파주디엠지 곤돌라는 ▲20년 28만 5,230명 ▲21년 41만 2,340명 ▲22년 44만 2,710명 ▲23년 51만 4,050명이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준 전년 대비 116.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가 2020년 3월 첫 운행 후 3년 9개월 만에 탑승객 16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에만 51만 4,000명이 다녀갔다.

임진각평화 곤돌라는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을 위해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된다. 80세(1945년생) 이상은 무료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10일(토)과 11일(일)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디엠지(DMZ) 탑승장(북쪽) 1층에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무료 체험마당도 운영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민주당 네바다주 경선서 승리 /사진 뉴스시스
▲아마존, 이번엔 의료·약국 사업 부문서 수백명 감원

▲EU, 기후중립산업법 3차 협상 잠정 타결
▲독일, 극우정당 ‘AfD’ 청년조직 정부 감시 허용



▲ 대만 대륙위 “중국 정찰풍선으로 인지전 강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 /사진 뉴스시스